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4)

## 무일인불가자(無一人不可者)

# 안 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나를 도와 준 놈이 하나도 없어!' 어떤 일을 끝내고 나서 실패했을 때 그 책임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에 화를 내면서 원망하는 소리이다. 속자 치통감에는 북송시절의 신종(神宗) 황제가 국력(國力)을 다 기울여 서하(西夏)를 정벌하려고 군사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나서 '무일인불가자(無一人不可者, 안 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했던 내용이 실려 있다.

북송은 북쪽으로는 거란족의 요(遼)와 대결하다가 전쟁 끝에 결국 요에 해마다 세폐(歲幣)를 30만 쌍을 주기로 하고 겨우 전쟁을 그칠 수가 있었지만 그 후에도 사소한 일로 작지면 영토조차 내주는 수 모까지 겪고 있었다. 게다가 서쪽으로는 강족(羌族)들이 세운 서하(西夏)가 있었는데, 땅덩어리나 인구로 보아서 송(宋)보다 보잘 것 없다고 무시하여 그 황제에게 송의 국성(國姓)인 조(趙)를 성으로 쓰라고 강요까지 할 수 있었던 상대였다. 그러자 서하는 힘의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송의 요구를 들어 주었지만 때로는 송·하 접경지대를 침구(侵寇)하였다.

그러자 송은 서하에도 해마다 세폐를 내주기로 하고 소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형식상으로 나마 서하가 송을 모시는 형식만 취했다. 형식은 승리지만 실속으로 보면 진 것이었다. 하여간 이렇게 하고 나서 서하는 처음에는 세폐를 받고 조용하더니 기회가 있을 적에는

다시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변경지대에 서 문제를 일으켰다.

송의 입장에서는 세폐를 받으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은 서하(西夏)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조금씩 달래 가면서 화평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또 언제 문제 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래서 황제인 신종도 속으로는 이 조그만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안들었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속이 상해도 전쟁을 한다면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을 생각하면 쉽사리 전쟁을 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처지였다.

이러한 때에 서하에서 군사를 모은다는 정보를 송에서 입수하였다. 서하가 군사를 모으면 그것이 그들 스스로 방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송으로 침구(侵寇)해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처지였다. 이러한 때에 이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심광(沈括) 같은 환관과 무장출신인 충악(忠鵠)이 그 대표였다. 전쟁을 하여야 전공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그 공로를 가지고 조정에서 권력을 잡고 큰소리도 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해를 가지고 국사를 처리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충악은 "하국(夏國)에는 사람이 없으며 조병상(趙秉常, 서하의 혜종)은 나이가 어리니 신이 가서 그의 팔을 잡아가지고 올뿐입니다!" 서하같이

작은 나라야 가서 그 나이어린 황제를 사로잡아 올 수 있고 그러면 서하에 대한 격정거리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신종은 믿고 싶었다. 이를 눈치챈 이들은 그럴 듯한 전략계획까지 세워서 신종을 설득하였다.

드디어 신종은 이번 기회에 서하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려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침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병사도 더 많이 모집했고, 물자도 전국적으로 동원하였다. 그리고 이 많은 군사를 다섯 길로 나누어 서하로 침공해 갈 계획을 세웠다. 겉으로만 보면 서하는 바로 없어질 듯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송의 계획에는 허점이 많았다. 주밀원(知樞密院)인 손고(孫固)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만 재화(災禍)를 풀기는 어렵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신종을 펼쳤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서생(書生)의 말이라고 무시하였다. 다시 5로(路)로 진격하는 송군(宋軍)에는 다섯 부대만 있었지 이를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통수(統帥)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론자인 환관 이현(李憲)은 지난 전쟁에서 약간의 승리를 했던 터라 다시 거병(舉兵)하여 하(夏)를 치게 해달라고 벌였고 재상인 왕규(王珪)가 "과거에 걱정한 것은 쓸 것이 부족한 것이었는데 조정에서는 지금 전조(錢鈔)를 연모(捐募)한 것이 5백만 민(緡)이니 군대의 식량을 공급하는 데는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다시 서하와의 전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정벌군들은 그들의 군사 숫자와 넉넉한 공격물자만 믿고 떠났다. 하지만 송군(宋軍)의 각 지휘관은 각기 다른 사람이 먼저 전공(戰功)을 세울까 걱정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심을 가지고 있어서 협조가 되지 않았다. 조정에서 협조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러 빙빙 돌아갔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의 전투에서는 송군이 이겼지만 조금 지나자 보급로는 서하의 몇 안 되는 유격병(遊擊兵)에게 끊기어 송의 병사들이 군대로 굽게 되었고 군사들은 제풀에 무너졌다. 그렇게 많이 동원한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인 셈이었다. 참패였다.

이 실패를 보고 난 신종은 손고에게 "만약에 경의 말을 채용했다면 반드시 이런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후회하는 듯한 말을 했다. 소식(蘇軾) 같은 사람도 서하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편지를 장방평을 통해 올렸다.

그러나 전쟁론자인 환관 이현(李憲)은 지난 전쟁에서 약간의 승리를 했던 터라 다시 거병(舉兵)하여 하(夏)를 치게 해달라고 벌였고 재상인 왕규(王珪)가 "과거에 걱정한 것은 쓸 것이 부족한 것이었는데 조정에서는 지금 전조(錢鈔)를 연모(捐募)한 것이 5백만 민(緡)이니 군대의 식량을 공급하는 데는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다시 서하와의 전쟁을 주장하였다.

서하정벌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자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근사하였지만 이 또한 무모한 일이었다.

이때에도 신중론자들은 5백만 민이라는 돈은 많기는 하지만 돈이 바로 물자는 아니어서 이것을 물자로 바꾸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천천히 하자고 하였고, 또 적당한 장수가 없다는 것도 누누이 강조하며 신중하기를 간언했다. 신종은 이 모든 신중론과 간언을 듣고는 겨우 대대적으로 군사를 동원하지 말고 송하(宋夏) 변경에 영락성(永樂城)을 쌓아서 여기서 서하를 내

만들어 놓고 세상을 뜯 것이다.

그가 죽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의 아들 철종(哲宗)과 휘종(徽宗)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휘종과 그의 아들 흠종(欽宗)이 새로 등장하는 금(金)에 포로로 잡혀가자 북송은 끝을 맺는다. 신종 이후 북송이 40년을 더 지탱한 것도 송이 잘 해서이기 보다는 송과 대결하였던 요(遼)가 송을 병탄할 힘이 없어서였을 뿐이다. 잘 못하고서도 잘 못한 줄 모르고 남 탓하는 신종은 결국 조종(祖宗)이 세운 북송을 망쳐 먹은 장본인이라고 해도 괜찮을 성 싶다.

속자치통감의 필자도 "황제(신종)는 끝내 깨닫지 못하고 바야흐로 원로(元老)들을 폐기하여 내쫓고 간언(諫言)하는 인사를 밀쳐내 버리고 이를 시행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으나 조종(祖宗)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법도의 아름다운 뜻은 변하고 무너져서 거의 없었으며 이에 길들여서 정강(靖康) 시절의 화(禍)에 이르렀다." 이 보고를 받은 신종은 눈물을 흘리며 비분(悲憤)하였고 밥도 먹지 않았다. 조그만 영락성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이 속상해서일까?

그는 서하에게 참패한 것이 억울해서인지 분해서인지 아침에 보필하는 신하를 마주하고는 통곡을 하였다. 신하들은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신종은 말을 꺼냈다. "영락성에서 거병(舉兵)하는 것에 대하여 한 사람도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서하를 치기로 결정한 것은 신종이었다. 그리고 전공을 세워서 상(賞)을 받을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려 잘 못 결정해 놓고 결과로 돌아가자 왜 나에게 '안 된다'고 충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원망한 것이다.

그 후에 북송시대의 대표적인 재상의 하나였던 나이 80의 부필(富弼)이 죽으면서 이 전쟁의 실패에 관하여 길고 긴 편지를 올렸지만 소용없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었다. 신종도 그 뒤로 2년이 안 되어 죽었으니 나라만 기울어지게

## 추밀공파 매현공 춘향제 봉행



매현공(梅軒公 權遇, 16세, 추밀공파) 춘향제가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매현공 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여 명의 참여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봉행되었다.

초현관 권태관(權泰寬), 종현관 권치구(權治九), 대죽에는 권용주(權容周) 추밀공 종중 고문으로 각각 분장하여 거행하였다. 종중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해 예전처럼 온전한 향사를 받들지는 못하고 재난궐향(災難闕享)의 고유(告由)를 정성껏 올렸다. 제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되었다.

매현공종중 고문 권용주



여름에 들어선다는 입하절(立夏節)을 맞아 근당(勤堂) 권태은(權泰殷) 대종회 이사가 안동권씨의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조상을 상상하고 어른을 공경한다는 송조경장(崇祖敬長)을 붓글씨로 써서 보내왔다.

## 2021年 4月 증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3. 30 ~ 4. 28  
총 납부자 59명

(이름순)

(단위: 원)

◆ 권영현	권수기(대구)	30,000	권오정(예천)	30,000	권춘기(구미)	30,000
◆ 권오성	권승욱(용인)	30,000	권오현(서울송파, 풍납동)	30,000	권춘탁(영주)	30,000
◆ 권태진	권영락(대구 달서구)	30,000	권용집(영주)	30,000	권태경(보령)	30,000
권갑수(부산)	권영복(제천)	30,000	권육형(원주)	30,000	권태열(청주)	30,000
권구율(합천)	권영언(양평)	30,000	권원대(대구)	30,000	권태정(서울영등포)	30,000
권금립(군산)	권영운(봉화)	30,000	권이섭(경기하남)	30,000	권한기(봉화)	30,000
권기성(서울영등포)	권영혁(서울동대문)	30,000	권일혁(경기화성)	30,000	권해호(부산)	30,000
권길성(서울동작)	권영환(음성)	30,000	권정승(서울성동)	30,000	권혁광(경주)	30,000
권동현(서울강동)	권오기(안동)	30,000	권재모(산청)	30,000	권혁근(경주 운곡서원)	30,000
권병국(산청)	권오선(아산)	30,000	권재원(안동)	30,000	권혁록(안동)	30,000
권병균(천안)	권오섭(진천)	30,000	권정수(창원)	30,000	권혁무(대구 남구)	30,000
권병선(서울동대문)	권오수(경기고양)	50,000	권정훈(인천)	30,000	권혁주(서울도봉)	30,000
권봉현(포항)	권오수(경기이천)	30,000	권종덕(인천)	30,000	권혁환(평창)	30,000
권선옥(광주)	권오수(안동 신안동)	30,000	권종찬(구미)	30,000	권홍식(의성)	30,000
권세환(상주)	권오인(창녕)	30,000	권준식(경기용인)	30,000	<b>총 1,790,000원</b>	

\* 표시한 납부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 대종회 사무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